

“열린 협회 만드려 나갈 것”



(사)한국스크린공업협회는 지난 2월 22일 정기총회를 갖고, 제18대 신임회장으로 박동립 동양상사 대표을 선출했다. 회원들의 만장일치로 선출된 박동립 신임회장은 지난 시간 스크린협회 이사와 부회장을 맡으면서 스크린협회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온 인물이다. 협회와 업계의 발전을 위해서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보겠다는 박동립 신임회장. 그를 임기 첫날, 을지로에 위치한 (사)한국스크린공업협회 사무실에서 만났다.

김정삼 기자 sang@print.or.kr

◎ 신임회장으로 당선된 소감을 부탁드립니다.

◎ 지금 인쇄업계는 많은 난관에 부딪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스크린인쇄업은 그 특성상 기술발전의 템포가 빨라 정보의 원활한 교류를 통한 수준 향상이 시급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환경문제가 이슈가 되면서 중소기업들은 또다른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여러 어려운 시점에서 저를 믿어주신 분들께 무엇보다 먼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회원들의 친목과 화합을 다지며, 저에게 주어진 스크린인쇄업계 발전이라는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앞으로 협회 발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임기 중에 진행하고자 구상한 사업은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협회회관 건립', '기술정보교류', '세대 간의 교류' 가 그것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린 '협회회관 건립'은 전임 회장님께서 추진했던 사업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금상의 문제로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하였으나 아쉽게도 임기 중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회원들의 숙원사업인 협회회관 건립을 완료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원활한 '기술정보교류'를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스크린인쇄업계는 최첨단 분야이기 때문에 끊임 없이 공부하고, 발전하지 않으면 뒤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한 전문 정보제공을 목표로 하고, 또한 이에 그치지 않고 회원사들에게 도움이 되는 세미나를 준비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이론세미나에 그치지 않고, 직접 실습을 겸하도록 해서 직접적으로 회원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세대 간의 교류'는 스크린인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연령층이 조금은 양분되어 있는데 진보와 보수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앞으로 한쪽에 치우치지 보다는 스



크린인쇄업계 원로분들의 사려깊은 말씀과 젊은 층의 변화의 목소리 모두에 귀를 열고 듣도록 할 것입니다.

◎ '협회회관 건립 사업'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 '협회회관 건립'이라고 해서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 무리를 해서 큰 건물을 짓자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 지금의 협소한 사무실에서 벗어나서 회원사들과의 원활한 교류가 가능한 곳으로 옮겨가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이밖에도 협회의 사업을 원활히 꾸려나가기 위해서도 협회회관 건립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재정상의 문제와 사업 방향에 대한 논의로 지연되었지만, 뜻있는 회원사들의 지원으로 꾸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스크린협회 회원사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사업의 방향과 일정을 정해 추진할 예정입니다.

◎ 기금 조성은 잘 되고 있습니까?

◎ 시작이 반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모아진 기금은 1300만원 정도입니다. 작년 임원진들이 구상을 해 놓은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 목표액에 다다를 때까지 많은 회원사대표들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 나가려고 합니다. 스크린인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협회회관 건립의 필요성을 느끼고 계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 기술정보 교류사업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십시오.

◎ 국내 기술 교류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발전을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그보다 아직 한 차원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기술 동향들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자리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현재도 일본 및 유럽 각국과 교류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익힌 새로운 기술에 관한 정보를 '스퀴지뉴스'와 '스크린인쇄기술정보'를 통해 회원사들에게 제공할 것입니다.

이밖에도 다양한 세미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

“

앞으로 스크린업계는 국내 대기업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산업의 전문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고, 국내시장뿐 아니라 세계시장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은 구체적인 내용과 일정에 대해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예산이 짜여있기 때문에 임원진이 구성되는 대로 발빠르게 움직여 회원사들과 함께하는 자리를 가질 생각입니다. 세미나는 단순히 이론 강의가 아니라 실습도 겸해 볼 수 있는 유익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런 다양한 기술세미나를 통해서 관련업계 CEO와 회원사간의 직접적으로 도움이 받을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업계 수준의 향상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 '세대간의 대화' 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주시죠.
- ◎ 우선 스크린협회는 원로분들의 희생없이 지금의 발전이 불가능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직도 원로분들에게 배우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스크린인쇄업계에도 세대교체라는 강력한 바람이 불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갈등이라는 것이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쪽의 말만이 절대적으로 옳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맞는 부분도 있고, 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서로의 이야기를 긴밀하게 들어주는 모습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두 세대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서로의 이

야기를 충분히 듣는 자리를 마련하고, 거기에서 조금씩 서로에 대해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실과 이상의 적절한 조화, 도의와 실리의 정도를 찾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 ◎ 스크린인쇄업계의 당면한 과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 현재 스크린인쇄업계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올해 7월 시행되는 환경관련 법안들과 관련된 환경적인 문제들이 바로 앞에 닥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크린업체의 특성상 유해물질이 다량 배출될 수밖에 없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진행되는 법안은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킬 것입니다. 물론 미리 통보한 바 있지만, 그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하지 못했고, 대다수의 스크린인쇄업체가 중소기업이라는 점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런 업체들의 보호와 정부지원을 유도하는 일을 협회가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는 협회 차원만으로는 풀기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협회 회원사들도 자발적으로 기업의 체질 변화에 앞장 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중앙회와 지역 간의 긴밀한 협력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신가요?

◎ 스크린협회 앞에 놓인 또 다른 문제는 바로 중앙회와 지역회 간의 교류가 원만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리상의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함께 모이는 자리에서도 친분이 없어 서로간의 서먹한 자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협회를 구성하고 있는 협회 회원사들을 일정한 지역 구분에 맞춰 지부화하는 방법을 생각중입니다. 대략적으로 4개에서 8개 지부를 생각하고 있는데, 이사회에 승인을 거쳐 뚜렷한 청사진을 내놓을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각 지부는 협회의 든든한 기둥이 될 것이며, 그동안 체계적이지 못하고 효율적이지 못한 협회업무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국내 스크린인쇄업계의 활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다시 말씀드리지만 스크린인쇄는 최첨단 부가가치 산업으로 산자부 산하단체로 지정되고 그에 따른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에 대한 충분한 인정을 받지 못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스크린업계는 국내 대기업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산업의 전문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고, 국내시장뿐 아니라 세계시장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스크린인쇄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 이제 봄기운이 완연합니다. 따뜻한 봄날 스크린협회의 회장으로 이 자리에 앉으니 책임감이 막중합니다. 우리 업계에도 겨울이 지나고 이런 봄날을 만들기 위해 다같이 노력하길 바랍니다.

스크린인쇄라는 분야가 첨단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전의 인식 때문에 낙후산업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자신들의 노력이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더욱 많은 정보를 효율적으로 공유하고, 시장 확대에 관해서 머리를 맞대고 생각해 나갈 것입니다.

환경문제도 이런 식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협회와 같은 문제를 고민하고 길을 찾는 과정, 그 가운데 협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협회는 회원사와 공존합니다. 회원사가 없이는 협회도 없고, 협회가 없으면 회원사들도 힘을 갖지 못합니다. 이렇듯 2006년에는 협회 회원사들의 작은 힘을 협회에 보태 더욱 큰 일들을 이루어 보기를 기원합니다. 나아가 인쇄 산업 전반이 점점 더 큰 활기를 띌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회장님의 하루 생활 패턴이 궁금합니다.

◎ 제가 회장에 출마한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회사가 믿음직한 사람들에 의해서 안정이 되었고, 더 늦으면 열정을 가지고 협회 일에 전적으로 투신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했고, 회원사분들께서 저에게 주신 기회를 한번 최대한 살려볼 생각입니다.

생활 패턴이라고 한다면 별 것 없습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 하루 일과를 새벽 3시 30분에 시작합니다. 해가 뜨기 전이죠. 조용한 시간에 일어나서 스크린 인쇄와 잉크에 관련된 공부를 하고 6시쯤 회사의 생산라인을 둘러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결제를 하고, 직원들이 출근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저에게 맡겨진 일들을 처리합니다. 물론 그런 일은 든든한 아들과 믿음직스러운 직원들이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생활 패턴이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아침에 회사를 둘러보고, 개인적인 업무 대신에 회원분들과의 만남의 시간이 많아질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더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 앞으로 스크린인쇄업의 전망은 밝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단혀있는 부분이 많은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회원 개개인의 여론을 수렴하고, 임원진과 이사진과 협력해 더욱 나은 스크린협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열린 스크린협회가 되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협회 회원사와 관계자분들의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어떤 사소한 의견이라도 서슴치 않고 말씀해 주시면 귀 기울여 듣고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력한 저를 회장으로 선출해 주신 회원사분들에게 거듭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김정삼 기자 sang@print.or.kr